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RIVERKEEP

가제 : 강 파수꾼

저자 : Martin Stewart

출판사: Penguin Random House Children's

발행일: 2016년 봄

분량 : -

장르 : YA 소설



강 안팎을 관리하며 낚시꾼의 안전을 지키는 강 파수꾼, 바닷속 신비한 생명체를 만나기 위한 모험

강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온 아빠와 함께 사계절을 강 위에서 보낸 올리엄은 아직 어린 나이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강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올리엄에게 강이 살아있거나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보인 적은 없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가 바위에 걸린 시신들을 건져내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동동 떠오른 몸, 몸과 분리된 듯 들어올려진 팔, 수면이 마치 두꺼운 유리인 것처럼 그 아래에 갇혀 입을 벌린 시신들을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서 보트 쪽으로 끌어당기고, 팔을 뻗어 죽은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배에 싣는 것도 강을 지키는 아빠의 몫이었다. 올리엄은 이런 삶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아빠는 매일 쓰는 업무일지를 올리엄에게 보여주며, 어떻게 읽고 어느 항목에 무엇을 쓰는지 다 가르쳐주셨다. 뽁뽁하게 기록된 그 노트에는 건져 올린 시신의 상태를 세세하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옆 칸에는 그들이 강물에 몸을 던진 사유도 일일이 나와 있다. 올리엄의 눈에는 그 긴 목록에 나온 내용들이 다 똑같아 보였다. 아빠에게 그 기록이 꽤 존경할 만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삶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상장과 다름없지만, 올리엄에게 아무 의미 없이 같은 말만 반복되는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서 그 일지는 올리엄의 손에 맡겨진다.

보트 하우스를 고치고 관리하는 것도 강의 파수꾼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이 일 역시 업무일지에 모두 기록한다. 아빠에게 이상한 낌새가 나타난 건 보트하우스를 수리한 후 내용을 기록하던 어느 날이었다. ‘어디서 이러는 거지?’ 이상하리만치 낯설게 들리는 아빠의 목소리. 문간에 서 있던 올리엄은 의아해하며 돌아보았고, 아빠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램프를 켜려는 올리엄을 향해 아빠는 마구 소리를 질러대며, 빛은 절대 안 된다고, 어둠이 좋다며 고래 고래 소리쳤다. 고요한 강물 위에 나갈 때마다 램프와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곤조곤 이야기하

던 아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빠가 암흑의 영혼에게 사로잡혀버린 것이다.

악마에 사로잡힌 영혼, 그 무서운 힘을 이겨낼 약을 찾아 강 아래로 떠난 소년의 이야기

아빠가 악마의 어두운 영혼에 꼼짝없이 사로잡힌 후, 대대로 이어진 강 파수꾼의 역할은 어린 올리엄이 맡게 되었다. 강 전체를 관리하고, 낚시꾼들이 물에 곤두박질치지 않도록 돕고, 이미 빠져버린 시신을 건져내는 그 모든 일을 올리엄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빠를 보면서 절망하던 올리엄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강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거대한 바다괴물, “모모라크”의 뱃속에 아빠의 건강한 영혼을 되찾을 수 있는 묘약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였다. 반드시 괴물을 만나 약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올리엄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늘 보호하면서도 자신은 한 번도 탐험을 해보지는 않았던, 강 아래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

저자는 1790년부터 영국 글라스고의 휴메인 소사이어티에서 실제로 활동하던 강 파수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편의 서사시와 같은 아름다운 소설을 완성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강 위에서 사고로 빠진 사람들, 가슴 속을 잠식한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도시 곳곳 수로에서 뛰어든 사람들이 물고기 밥이 되어 수면 위로 떠오르면 그들을 수습했던 강 파수꾼의 이야기가 올리엄과 아빠의 이야기 속에 녹아있다. 섬세한 문장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가득한 소설로, 독자를 사로잡는 언어로 어두운 아름다움을 살려내어 패트릭 네스나 마고 래너건에까지 비견되며 작가는 영국 소설계의 새로운 메이저 작가로 우뚝 설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저자 소개>

작가인 마틴 스튜어트(Martin Stewart)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문학연구 석사를 수여했으며 스코틀랜드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교 등에서 문예창작과 강의를 하기도 하며 집필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그는 Kyle Academy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위 소설은 그의 데뷔작이다.

제목 : REMNANT TRILOGY

가제 : 유물 3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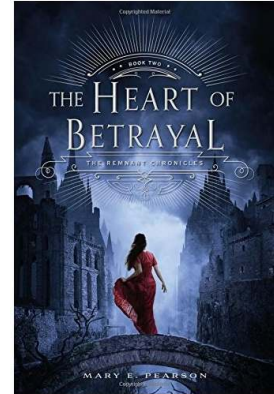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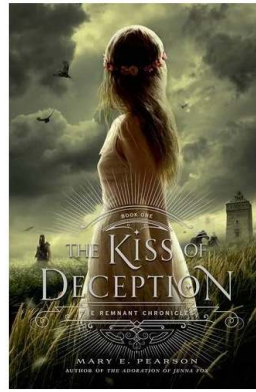
저자 : Mary Pearson

출판사: Henry Holt and Co.

발행일: 2014년(1권) / 2015년 7월 7일(2권)

분량 : 512 페이지 / 480 페이지(2권)

장르 : YA 소설



전통에 얽매어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 공주로 태어난 리아. 인습에 얽매어 희생하는 삶 대신 용감하게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녀의 용기와 이를 막으려는 세력들의 얽힌 관계가 판타지 시리즈로 만들어졌다.

1권. 배신의 키스(The Kiss of Deception)

엄격한 질서와 전통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난 리아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야만 했다. 급기야 열일곱 어린 나이에, 국가적인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웃 나라의 왕자와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 부모님이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아는, 결혼식 당일에 시녀이자 믿음직한 친구인 파울린과 도망친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파울린의 고향인 어느 바닷가 마을. 이곳에서 둘은 신분을 숨긴 채 허름한 식당 겸 여인숙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젊은 남자 두 명이 리아가 사는 마을로 찾아온다. 잘생긴 두 청년 라페와 카덴은 다름아닌 도망친 신부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그녀를 찾아온 왕자와 그녀를 없애기 위해 파견된 암살자였다. 카덴은 두 나라의 동맹을 반대하는 벤다 왕국에서 리아가 다시 왕국으로 돌아와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아예 없애버릴 작정으로 보낸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정체를 알리려는 리아는 그들과 가까워지고,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너무 늦게야 그들의 위태로운 비밀을 알아챈다.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뜻하지 않게 피어난 사랑 이야기가 긴장감 넘치게 이어진다.

2권. 배신의 마음(The Heart of Betrayal)

벤다 왕국에서 그녀를 없애기 위해 보낸 암살자 카덴과 사랑에 빠져버린 리아 공주. 결국 그의 손에 이끌려 벤다 왕국으로 끌려온 리아는 카덴의 정체를 알고 배신감과 함께 큰 충격을 받는다. 벤다의 악랄한 왕 코미자르는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으며 자신의 부하들을 조종하는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이제 리아를 도와줄 사람은 라페 왕자뿐. 그런데 리아가 도피 길에 오르면서 만든 가명이 아닌 진짜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벤다 왕국의 사람들은 리아를 예부터 나라의 구원자로 예견된 인물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코미자르는 리아와 부부가 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

를 하고, 리아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서둘러 벤다 왕국에서 달아나야 한다. 그러나 감옥에 꼼짝없이 갇힌 상황에서, 정체를 드러낸 카덴과 잔인하기 짝이 없는 코미자르에 맞서 과연 라페와 리아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등장인물들의 시선이 번갈아 가며 들려주는 이야기는 긴장감을 더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리아가 점점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녀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시리즈는 총 3권으로 구성되며 3권도 이어서 발표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메리 피어슨(Mary Pearson)은 《Jenna Fox Chronicles》 등 여러 편의 YA 소설을 발표하여 ‘골든 카이트 상(Golden Kite Award)’, ‘ALA YA 우수도서상(ALA Best Books for Young Adults)’ 등을 수상했다.